

출장결과보고
2016. 04. 28

일본 마을 활성화·기금 운영 사례조사 및
농촌계획 전문가 세미나 참석 결과

송미령 부원장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성주인 · 심재현 · 유은영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현지조사 일정과 주제	2
III. 현지조사 주요 결과	4
1. 교토부 생명마을 사업의 성과·과제와 추진 방향	4
2. 교토부의 ‘교토부 지역 힘 재생 프로젝트’	8
3. 후루사토 납세제도	12
3.1.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	12
3.2. 교토부의 후루사토 납세	17
3.3. 요사노 정의 후루사토 납세	18
3.4. 교탄고 시의 후루사토 납세	19
4. 작은 거점 관련 지자체 조사(미야마 정)	20
4.1. 미야마 정, 히라야 진흥회	20
4.2. 미야마 정, 츠루가오카 진흥회	25
IV. 교류세미나 결과	29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일본 마을 활성화 ·기금 운영 사례조사 및 농촌계획 전문가 세미나 참석

2. 출장 목적:

- 농촌의 정주기반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현안 대응에 참고할 일본의 정부 및 지자체 사례 공유
 - 특히 마을 공동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인재 활용, 마을 연계 등의 활성화 시책을 고찰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파악
 - 농촌 활성화와 관련한 일본 지자체의 다양한 기금 운영 사례 파악을 통해 국내의 상생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및 시사점을 도출
- 일본 농촌계획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 경험을 축적한 교토대학교 농촌계획연구실(담당: 호시노 교수)과 한·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
 - 상대국의 농촌의 변화 동향 및 정책 추진 경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한·일 농촌계획 분야 전문가 간에 향후 지속적인 교류 및 공동 연구의 계기를 마련함
 - '14년 10월 KREI에서 개최한 바 있는 농촌계획 전문가 세미나에 이어 후속 교류 행사로 추진
 - * (14년 세미나 주제) 한국과 일본의 농촌 정주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동향

3. 출장자: 송미령 부원장,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성주인 · 심재현 · 유은영

4. 출장 지역: 일본 교토

5. 출장 기간: 2016. 3. 22(화) ~ 3. 26(토) (4박 5일)

6. 출장 일정:

일 자	지역	시간	일 정
제1일 3/22(화)	김포 간사이공항	16:55 18:35	○ 나주역 → 김포공항 ○ 김포공항 출발 ○ 간사이공항 공항 도착
제2일 3/23(수)	교토부	전일	○ 교토부지사 및 부지사 면담
제3일 3/24(목)	교토부	전일	* 후루사토 납세 시행 지자체 사례 조사 ○ 미야즈시 (지자체) 방문 ○ 교탄고시 (지자체) 방문
제4일 3/25(금)	교토부	전일	* 교토부 농촌 지역 만들기 및 활성화 현장 사례 조사 ○ 아야베시 방문 ○ 교탄고시 (지자체) 방문
제5일 3/26(토)	교토부	11:00 18:10 20:10	○ 교토대학교 - 한일 농촌계획 전문가 세미나 참석 ○ 간사이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 나주역

II. 현지조사 일정과 주제

일시	주요 일정 및 주제
1일차 (3.23, 수)	교토부청 방문
	○ 교토부 생명마을 사업 성과·과제와 앞으로 시책 추진 방향 - (면담) 교토부 농림수산부 농촌진흥과 : 쿠리야마(栗山) 지역 활성화 담당 과장, 타부치(田淵)부과장
	○ 교토부 지역힘 재생 프로젝트 - (면담) 교토부 부민생활부 부민힘추진과 : 스즈키(鈴木) 부민힘 추진 과장
	○ 교토부 후루사토 납세 정책 - (면담) 교토 부 문화 스포츠부 문화정책과 : 越智 주사

<p>2일차 (3.24, 목)</p>	<p style="text-align: center;">후루사토 납세 관련 지자체 방문(요사노 정, 코탄고 시)</p> <p>○ 요사노 정 의 후루사토 납세에 관하여 - (면담) 요사노정, 기획재정과 : 와타나베(渡辺)</p> <p>○ 코탄고 시 의 후루사토 납세에 관하여 - (면담) 코탄고시, 기획 재정과 : 이노우에(井上) 계장</p>
<p>3일차 (3.25, 금)</p>	<p style="text-align: center;">작은 거점 관련 지자체 방문(미야마 정)</p> <p>○ 미야마 정 히라야 진흥회 시찰 (탄고 시, 미야마 정, 히라야 지구) - (면담) 히라야 진흥회 회장 外田誠씨, 교토부 집락 행정 지원인(사토노 시고토인) 吉田부실장</p> <p>○ 미야마 정 츠루가오카 진흥회 시찰 (탄고 시, 미야마 정, 츠루가오카 지구) - (면담) 츠루가오카 진흥회 회장 下田敏晴씨, 교토부 집락 행정 지원인(사토노 시고토인) 吉田부실장</p>
<p>4일차 (3.26, 토)</p>	<p style="text-align: center;">교류 세미나(교토대학교)</p> <p>○ 교류세미나 - 좌장: 호시노 사토시 교수 (교토대) - 일본측 참여자: 호시노 사토시(교토대 농학연구과 교수) 오다 카즈히코(교토부 농업·농촌 창생센터 회장) 시미즈 나츠키(교토대 농학연구과 준교수) - 한국측 참여자: 송미령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원근 교수 (협성대학교) 구진혁 대표 (누리넷) 성주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은영 초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p>

III. 현지조사 주요 결과

1. 교토부 생명마을 사업의 성과·과제와 추진 방향

□ 마을힘재생액션플랜의 배경 : 과소화 및 고령화

- 교토부는 5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인구 감소는 교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임. 고령화를 역시 전국이 23%인데, 교토부도 23%임.
 - 교토부의 여러 시정촌 중 카사기 정은 1,369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렇게 작은 지자체의 경우 과소화, 고령화, 어린이 감소가 아주 심각함.
 - 교토 북부의 인해 정이라는 곳은 고령화율이 43%에 달함.
- 교토부가 농촌마을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인구총조사의 영향을 받았음. 10년 전에 한계마을(과소화 고령화 마을을 대표하는 용어) 문제가 일본사회에 대두되었고, 교토부에서 독자적으로 한계마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한계마을은 65세 이상 인구가 마을 인구의 50% 이상인 마을을 의미함. 교토부의 전체 마을 수가 1703마을 중에 141개 마을이 한계마을로 판명됨.

□ 마을힘재생액션플랜 수립

- 이러한 과소화 및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8년 전부터 마을힘재생액션플랜의 수립을 시작함.
 - 농산어촌지역의 한계마을은 교토부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마을이기 때문에, 교토부에서는 한계마을은 생명마을이라고 명명함.
 - 과소화와 관련해서는 40년 전부터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하드웨어 정책이 주를 이루었음. 마을힘재생액션플랜은 인재육성, 주민의 자주성향상 등의 소프트웨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마을힘재생액션플랜 中 생명마을사업의 추진

- 교토부의 1,700마을이 있는데 스스로 지역 활동을 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이 서로 연계하는 정책을 고안한 것이 생명마을사업임.
 - 고령화마을과 고령화되지 않은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임.
 - 이런 연계조직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외부인재를 투입하고 있음.

- 생명마을사업 추진단계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음.
 - 스텝1은 연계권역을 만드는, 지역의 토대 만들기임.
 - 스텝2는 연계권역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스스로 만드는 것임. 마을주민만으로 지역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이 어렵게 때문에 마을행정지원인과 집락민간지원인 등의 외부인재를 투입하고 계획을 만듦.

※ 집락행정지원인, 집락민간지원인 제도

- ‘집락행정지원인’은 교토부에서 마을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현재 총 14명이 각 마을에 배치함.
- ‘집락민간지원인’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민이나 귀농·귀촌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지역민으로, 지역매니저타입과 사회기업타입이 있음.
 - 지역매니저타입은 해당 지역 주민에 해당하며, 사회기업타입은 외부인재가 들어와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형태로 ‘지역활성화협력대’라 칭하기도 함.
 - 교토부에는 현재 지역매니저타입의 집락민간지원인 3명, 지역활성화협력대 3명이 투입되어 있음.
- 마을발전계획을 만들기 전에 이들 외부인재가 최소 10회이상의 워크숍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과정을 거치게 됨. 지역주민만의 힘으로는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인재가 지원자의 역할을 함 .
- 과소화 고령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갖기가 어려움. 그래서 외부인재가 들어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을 지역주민에서 알리고 어필하고 있음.
- * 중앙정부차원에서 8년전부터 농촌지역에 인재를 투입하는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지역활성화협력대를 3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2015년에 실현됨.

- 스텝3은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재생을 실현함.
- 사업기간은 3년이며, 생명마을사업은 7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액션플랜은 6년 전에 마련함. 이듬해 민간집락행정지원인과 집락민간인을 배치하고, 지금까지 48권역이 시행되었고, 마을수로는 370마을임.
- 370마을은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한 마을로, 교토부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마을의 약 60%가 시행함.
-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과소화 노령화로 인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의식저하가 있는데, 의식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즐겁게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생명마을사업은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지시를 내리진 않음. 지역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구마다 사업이 다름. 지구마다 사업비도 다르고, 집을 고치거나 생활환경기반 개선, 특산품개발, 복지버스운영 등 지구마다 상황에 적합한 사업을 각기 추진하고 있음.
- 농촌마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정하여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식을 만들어나가는 것임.
- 외부인재가 지역만들기 사업의 리더가 되어선 안되고, 주민이 직접 리더가 되어야 함. 지원자는 주민들의 활동을 뒤에서 서포터하는 역할이 중요함. 마을재생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생각하여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 일률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음. 지금까지 농촌마을 관련한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교토부의 행정과 각 시정촌의 행정기관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스템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음. 지금까지는 교토부에서 시정촌을 내려가는 수직적인 거버넌스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평적인 거버넌스로 발전하였음.
- 농업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지원 등 폭넓게 지원함. 지금까지 수직적인 보조금 지원과는 다름. 지역에 아이디어를 지원한다든지 지역 과제해결 활동, 지역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의 형태를 계속 생각해나가고 있음.

□ 생명마을사업의 성과

- 빈집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거점으로 재생하거나 이주자가 빈집을 활용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재생하는 등의 활동을 함.
 - 농촌지역에는 빈집이 많음.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오랫동안 방치되던 빈집을 개조하여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고령자들의 문화를 전승해가는 활동도 시행하고 있음.
- 사람이 모이고 만나는 활력있는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시주민 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도시주민과 교류에서 페이스북 등의 sns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페이스북의 활용은 지역 외부에 지역을 소개하는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
- 고령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공공교통기관도 사라지고 있고, 버스노선이 가지 않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음. 이런 지역은 주민스스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이런 활동들이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활동임.
- 'npo생명마을교토촌'이라는 npo지원단체를 만들어서 농촌지역에서

의 활동을 도시로 연결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npo활동은 도시주민에게 기부를 받고, 이를 교토부 지역에 사용하는데, 교토부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쓰임.
- 한가지 사례로, 작은 직판장들이 있는데, npo직원들이 작은 직판장들을 돌면서 팔리지 않는 상품을 모아 대신 팔아주는 활동을 하기도 함.
- npo직원은 무보수로 일한다. 이사들은 6~7명이고, 행정기관에 일하거나 민간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음. 실무일은 1명이 맡고 있음. 실무직원 1명은 보수를 받음. 농산물 판 것의 수수료, 기부금의 일부, 행정기관의 보조금 등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2. 교토부의 '교토부 지역 힘 재생 프로젝트'

□ 교토부 지역 힘 재생 프로젝트

- 교토부에서는 '교토 부 지역 힘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해 약해지고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회복시키고자 함.
- 9년 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5억 엔의 조성금을 만들어 현재까지 5,300만 엔을 지원함.
 - 5억 엔의 조성금 중 3억 엔은 교토부 재원이며, 나머지 2억 엔은 시정촌 관련 재원이고, 시정촌의 지원은 복권과 관련된 재원임.
 - 프로젝트 내 보조 사업의 경우 내용에 있어 제한 사항은 없으며, 사업 보조금 비율은 2/3까지 지원함. 보조 금액 상한은 600만 엔이며, 600만 엔의 2/3인 400만 엔을 상한으로 지원함.
 - 프로젝트 내 보조 사업의 경우 내용에 있어 제한 사항은 없으며, 사업 보조금 비율은 2/3까지 지원함. 보조 금액 상한은 600만 엔이며, 600만 엔의 2/3인 400만 엔을 상한으로 지원함.
 - 담당은 교토부 「부민 생활부」, 「부민 힘 추진과」 임

- 하지만 교토부 보조금에 의해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보조금이 끊기면 마을 만들기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함.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없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토 지역창조기금'과 '교토 NPO 지원연계 용자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 교토 지역창조기금

- '교토 지역창조기금'은 교토의 기부 문화 배양과 시민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2009년에 시민 등 300명 이상의 기부로 설립한 일본 최초의 시민 커뮤니티 재단임.
- 시민과 기업의 기부 등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추진하여 지속가능하면서 살기 쉬운 지역 사회 만들기 도모
 - 설립으로부터 5년 간 약 2억 엔의 기부금으로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추진
- 기금을 모으는 형태는 명칭 기금, 사업 지정 조성, 테마 형 등 총 3가지가 있음.
 - '명칭 기금'은, 기부하는 회사의 이름을 따서 기금을 만드는 것임. 예를 들어 특정 제약회사에서 300만 엔을 교토부에 기부를 하면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제약회사의 이름을 따서 기부금을 운용함.
 - * 특정회사가 지역사회에 1억 엔을 투자할 때,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들게 됨. 더 나은 방법으로써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단체에서 기금으로 사회 환원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지원한 기업에서 홍보를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임. 만약에 기업에서 기부를 300만 엔을 했다면 10%를 기금을 집행하는 단체에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 지정 조성'은 사업을 지정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임. 예를

들어 자연 단체라는 곳에서 어린이 자연 활동을 위한 어린이 학교 운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특정 테마로 지정을 하고 기금을 받는 형태임.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의 1-5%의 금액까지 자연 단체에서 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기금 모음의 형식은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자연 학교가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부분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NPO법인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함. 자연 학교 직원들이 모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연수회를 개최하여 교육을 함.

- '테마 형'은 특정 테마에 기금을 마련하는 형태임. 예를 들어, 의료와 관련해서 기금을 모집을 하면 의료의 다양한 분야에 분배해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임.

* 3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크게 나서 각 지자체별로 모금을 하여 기부금을 조성. 교토부 창조기금의 경우에도 모금을 하였는데 6,000만 엔을 기금으로 모금함.

○ 창조기금의 활용 사례로는 '미래협창'과 '지역 단체와 NPO 법인의 연계 촉진 사업' 등이 있음.

- '미래협창(협력 창조)'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임.

* 교토 기온 축제 쓰레기 프로젝트가 있음. 기온 축제는 일본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데 축제 기간 중 쓰레기가 많이 나옴. 교토부 창조기금과 다른 민간 기금을 합쳐서 1천만 엔 정도를 조성하였고 자원봉사자 3,000명 정도가 참여하여 축제 기간 동안 청소를 함. 이러한 축제를 하면서도 마을 모습이 유지된다는 점이 social innovation에 영향을 줌.

* 지역의 7개 대학이 연계하여 커뮤니티 방송 (FM)을 추진함. 이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활약할 수 있는 FM 방송인데 이와 같이 지역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교토지역 창조기금이 추구해나가야 할 방향임.

- '지역 단체와 NPO 법인의 연계 촉진 사업'은, NPO 법인과 마을 자치회(반상회)가 연계하여 어떤 활동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임. 기부금을 형성하고 이 기부금에 대한 동등한 금액을 교토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함.

* A라는 농촌 마을이 있으며 지역의 농산물 판매 NPO 법인 회사와 연계함. 마을과 판매 회사가 합쳐서 기부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조성한 기부금과 동등한 금액을 교토부에서 보조금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함.

* 예를 들어 농촌 마을과 농산물 판매회사가 기부금을 1,000만 엔을 조성하면 교토부에서 1,000만 엔을 보조금의 형태로 추가적으로 지급 함. 즉 2,000만 엔을 사업 진행에 사용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1,000만 엔의 경우 마을에서는 특별히 활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NPO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활동 추진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결국 지역 주민과 NPO가 연계해서 기금을 마련하여 마을 만들기, 지역 가꾸기 활동을 하고 이를 교토부에서 더 지원하는 형태로써 운용하는 것임.

○ 교토 지역창조기금은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해서 사회 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임팩트가 없어 사회에 큰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 기금을 모집해서 활동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취하는데 예를 들면 강 관련 환경 펀드가 있는데, 여기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비를 3,000엔을 받는데 이 중 2,000엔을 기부금으로 취하기도 함. 또한 행사 중 음식을 판매 할 경우 이 중 일정 비율을 기부금으로 취하기도 함.

- 최근에는 사망 시 유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회 환원 활동하는 형태가 많아졌음. 사망 시 여러 법적 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 사업 관련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한 전단지를 돌려서 기부 관련 홍보활동을 추가적으로 함.

○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운영이 힘들고, 직원이 3-4명인데 급료도 주어야 해서 다른 교토부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음. 기금의

5%를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함. 내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1억 4천만 엔 정도의 지원금이 나올 예정임.

□ 교토 NPO 지원 연계 용자 제도

- '교토 NPO 지원 연계 용자 제도'는 지역 과제 해결 등 공익 활동을 추진하는 NPO법인 등의 자가 자본을 용자하여, NPO법인이 안정적이고 활발히 지속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토부 특성에 맞는 지역 힘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
- 일본에서 NPO는 규모가 작고 여러 유형이 많아 신뢰도가 낮은 상태임. 그렇기 때문에 교토부 창조기금 단체에서 NPO에 대해 보증을 서고 NPO가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토 신용 금고, 교토 북부 신용 금고, 주식회사 교토 은행, 교토 중앙 신용 금고등의 금융기관에서 금리 2%에 용자를 받을 수 있고, 교토부와 교토시에서 금리를 부담함.
- 금융기관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돈을 빌린 NPO 법인에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가 한 건밖에 없었고, 지속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서 금융기관 장들이 위의 시스템에 동의하여 2013년 6월부터 실시하게 됨.
 - 지역 NPO 용자 실적은 NPO 100곳에 1억 9000만 엔을 용자함. 용자 금액은 법인 1곳 당 상한 500만 엔임. 300만 엔까지는 무이자이고 300-500만 엔은 금리가 2%임.
 - 이 시스템 내에서 NPO는 금융기관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실제로 100만 엔을 추가적으로 NPO가 스스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은 경우도 있음.

3. 후루사토 납세제도

3.1.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

□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도입

- 후루사토 납세 제도란,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자체에 기부했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고향(후루사토)납세 제도는 '08.4.30에 공포된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를 크게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지금은 도회지에 살고 있어도 자신을 길러준 고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로 얼마든지 납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함.
 -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나며 거기에서 교육을 받지만, 진학이나 취직을 기회로 도시로 나와 그곳에서 거주하기 때문임. 이들이 지방세를 납세하는 경우 이들이 살고 있는 도회지는 세수를 얻지만 그들을 기른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세수가 없다는 것의 부당성에 착안하여 제도 신설함.
- 후루사토납세제도 방식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후루사토납세자는 '개인'만이 해당되면,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2017년부터 기업판 후루사토납세 제도가 시행될 방침임.
 - 기부 대상 지역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나 기초자치단체(시(구)정촌)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기부자의 현주소나 출신지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기부금액은 얼마라도 무방하지만 5,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총소득금액의 30%까지만 주민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30%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되지 않음
 - 기부금에서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차감됨. 예를 들어, 3만엔을 기부하면 이 중에서 2만8천엔은 세금 공제를 받고, 2천엔은 실제로 기부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됨.

- 공제된 세금이 기부자가 지정한 지역의 세금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역할을 함.

□ 기부 금액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 증정

- 기부를 하면 지자체의 농민 등이 혜택을 받거나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 금액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
- 제도 도입 초기는 선물의 종류도 적고 선물을 주는 지자체도 많지 않았으나 최근 선물의 질이 높아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증가
 - 세금 공제 후 실제로 기부자가 부담하는 2000엔 정도의 기부금으로 다양한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선물로는 고기, 해산물, 쌀과 같은 식료품이 인기가 많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기부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온천, 골프장 등 시설의 이용권, 여관·호텔의 숙박권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증가
 - 스쿠버 다이빙, 캠핑, 산림욕 등 체험형 관광을 PR하는데 후루사토 납세 선물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잇달아 등장
- 하지만 최근 지자체 간 선물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 원래 기부금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지방이 활성화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일본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자제시키는 상황은 아님.

□ 후루사토 납세 기부금 증가

- 2015년부터 후루사토 납세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 기부금이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 고향(후루사토) 납세 시 납세자 본인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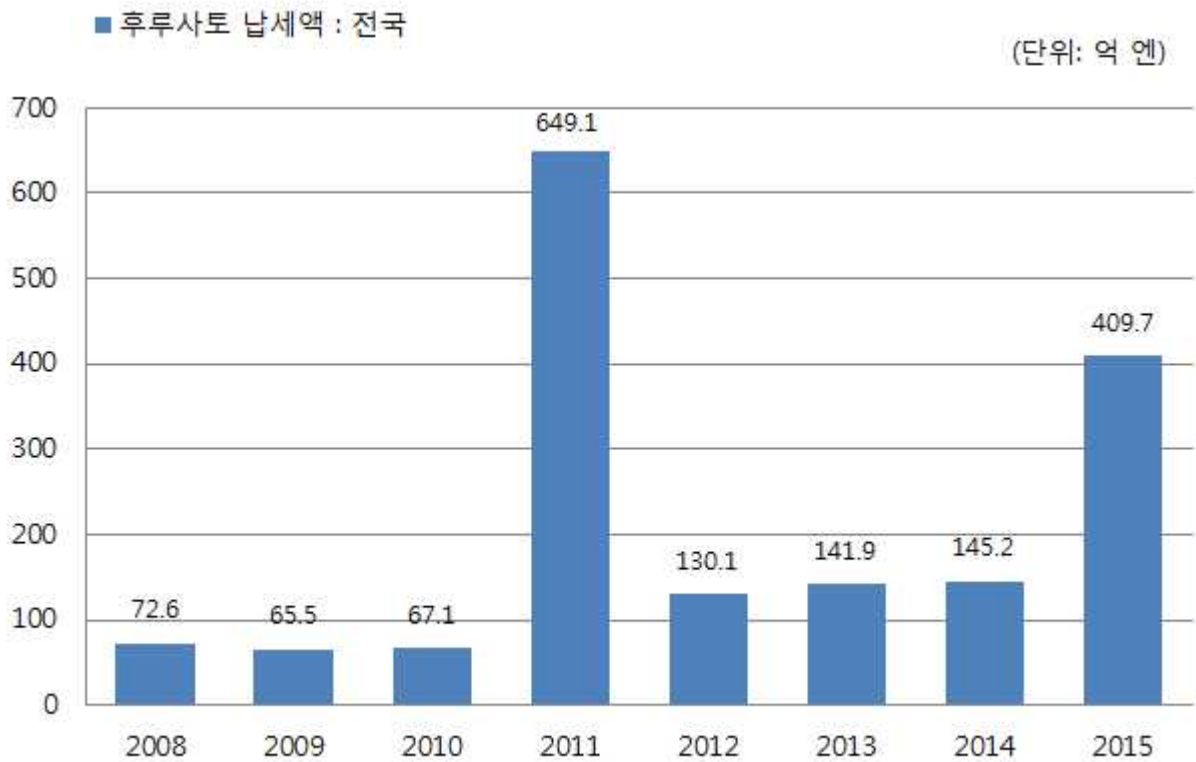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를 주저하는 사람도 많았음.

- 일본 정부는 '15년부터 고향(후루사토) 납세에 의한 세금 공제를 주민세로 일원화하고, 소득세 공제를 위해 필요로 했던 확정 신고 절차를 생략, 세금이 감액되는 기부의 한도액도 약 2배로 확대함.

○ 일본정부는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향(후루사토) 납세 제도의 이용자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08년 : 72억 5만 엔 기부 -> '12년 : 130억 1만 엔 기부
-> '14년 : 145억 2만 엔 기부 -> '15년 : 409억 7만 엔 기부

<연도별 후루사토 납세액>



□ 기부금의 사용처

- 기부금을 교육, 관광 진흥, 스포츠·문화 진흥 사업 등에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납세자가 선택 가능

- 각 지자체는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조성한 기금의 사용처를 사전에 공지하고,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특성 사업 또는 특성 사용처를 선택하여 기부를 하게 됨.
 -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어떠한 활동에 쓰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기부의 동기로 작용함.
- 후루사토납세는 기금펀드가 아니라, 세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특정 사업에 해당 기부금이 함께 사용될 수 있음.
 - 주민이 기부를 하지만, 기부금을 통해 세금이 공제되고 그 세금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이 제도는 주민이 스스로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를 하고, 해당 사용처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

□ 기업관 후루사토납세 제도 ‘지방창생응원세제’

- 2017년부터 기업관 후루사토 납세 제도인 ‘지방창생응원세제’가 시행될 예정임.
 - 지금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개인과 달리 기업이 납세할 때 기업에게도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등을 연구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임. 내년부터는 기업에 좀 더 이득이 되도록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기업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기업관 후루사토 납세는 기업의 본사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으로 돈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함.
 - 본사가 대도시에 있고 지사가 지역에 있으면, 지사가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음. 결국 동경중심이 아니라 지방으로 분산하는 균형발전의 일환임.
 - 국세와 지방세는 원래 공제되는 세금제도였고, 내년부터는 법인세도 감면됨.

- 기부금 하한액을 10만엔으로 함. 10만엔 정도의 소액도 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정한 것임.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도 이끌고자 함.
- 기업은 특정 지자체의 특정 사용처에 기부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쇄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업이 기부금을 문화재 보존에 사용하는 교토부에 기부함으로써, 문화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

3.2. 교토부의 후루사토 납세

- 교토부는 후루사토 납세 기금을 모두 문화재 보호에 사용하고 있음.
 - 교토부에는 전부터 문화재가 많아 50년 전부터 문화재보존에 35억엔을 사용해 왔고, 건수로는 7000건임. 50년간 문화재 보존에 연간 1억엔 이상을 사용해 왔지만, 교토부의 예산이 감소하면서 문화재 보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감소함.
 - 감소한 예산 부분을 후루사토 납세로 보충하고 있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나 자연보호에 후루사토 납세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직 교토부에서만 이 납세를 문화재보존에만 사용하고 있음.
 - 문화재 보수사업, 문화재 보존 의식을 향상 활동에 관한 사업, 문화재 방법관련 시설 등에 후루사토 납세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 교토부는 기부에 대한 답례품으로 문화재 체험과 관련한 상품을 제공함.
 - 교토에 3대 축제 중 하나인 아오이 축제의 특별관람석, 청수사 야간 입장권, 5만엔 이상을 기부한 경우 절에서 직접 제작한 현판을 답례품 등을 제공
- 후루사토 납세에 1억엔 정도를 모아서 사용했으며, 141개 사업에 사용함.

- 기부금 수준은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중간정도 수준임. 다른 곳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주기 때문에, 답례품에 대한 인기가 높음. 인기가 높은 지역의 경우, 5억엔 정도의 실적을 올리기도 함.

3.3. 요사노 정의 후루사토 납세

-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후루사토 납세 기금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멀리 거주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특산품으로 쌀, 도자기, 직물로 만든 넥타이, 램프 등을 제공함.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줌으로써 지역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지역회사들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특산품은 총 22세트 종류가 있음.
- 후루사토 납세 사용분야는 복지, 산업관광, 생활환경, 교육 등임. 기존에 요사노 정의 시행해온 사업들에 기금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음.
- 새롭게 지역활성화 라는 분야를 신설함. 지역활성화 분야는 요사노 정의 각 지구별로 후루사토 납세를 배분하여 지역활성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지구별로 사용하는 후루사토 기금을 '후루사토응원 보조금'이라고 함.
 - 지역활성화 분야를 만들어서 후루사토 납세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해짐.
 - 기부자들이 더 친근감 있는 지구를 선택하여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와 지역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했음.
 - 각 지구도 후루사토 납세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후루사토 납세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
 -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 사업을 설정하여, 해당 사업에 기부를 받는 모금방법도 강구하고 있음. 매력있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여 후루사토 납세를 증가시키고자 함.

- 요사노 정은 후루사토 납세 기금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요사노 정은 작은 지자체라서 재정이 부족함. 세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의 2014년 기금이 77억엔임. 그 중 인건비나 채무청산하면 약 90.7%의 돈이 지출로 나간감.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9.3%인 7억엔 정도로 이 돈으로 요사노정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상당히 부족함.
 -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후루사토납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답례품도 더 충실하게 준비하여 더 많은 기부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함.
 - 그 결과, 2014년에 400만엔까지 증가하여, 2013년에 비해 2.5배정도 증가함.

3.4. 교탄고 시의 후루사토 납세

- 교탄고 시에서는 후루사토납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부의 형태임을 강조하기 위해 '교탄고 시 후루사토 응원기부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교탄고시에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홍보를 강화
 - 기부금 사용의 용도는 ①지역분위기활성화 ②환경 ③건강복지 ④미래를 짚어지는 어린이 육성 ⑤시민협력협동과 생애학습 ⑥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향 응원 ⑦커뮤니티 비즈니스 응원임. 이러한 사용용도 중 선택하여 기부를 할 수 있게 함.
 - 구체적인 기금활용 내역으로는, 스포츠 이벤트, 바이오매스생산, 어린이건강검진, 어린이 장학금, 환경미화 등으로 활동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2015년 9월부터 기부한 사람들을 위한 답례품을 제공함. 전국의 사람들에게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기회로 후루사토 납세를 활용하고 있음.
 - 쌀, 과일 등의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후루사토 납세를 활용하고 있음.
 - 기부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PR하고, 돈들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농수산물 산업도 활성화 되고 있음.
 - 답례품도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자신의 상품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 답례품에 기부금의 40%의 돈을 씀. 질 높은 답례품을 통해 특산품의 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치으로 답례품에 공을 들이고 있음.
- 교탄고 시의 후루사토 납세 실적을 보면, 2014년, 76건 500만엔에서 2015년에는 5630건 9억엔으로 많이 증가함.
 - 2015년부터 인터넷 신청 및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실적이 크게 상승했으며, 답례품의 전폭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자들에게 어필 할 수 있었음.

4. 작은 거점 관련 지자체 조사(미야마 정)

4.1. 미야마 정, 히라야 진흥회

□ 작은 거점으로서의 히라야 지구

- 미야마 정은 인구 4,200명이고 히라야 지구는 840명임. 과소화, 고령화 상황에서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여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지역 활성화를 해나가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2002년에 히라야 진흥회를 발족함.

- 진흥회 전에 여러 조직이 있었는데, 마을 자치회, 지역 진흥 관련 조직, 공민관이 있었음.
- 지역 인재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하여 세 개 조직을 합쳐서 추진력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함. 주민들만 한 것은 아니고 미야마 정에서 직원을 3명 파견하여 지역 운영 체제를 만들고자 함. 점점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파견 직원을 줄이고 위촉 파견 직원을 한 명 두고 있음.
- 열 개 마을이 고령화율이 전체적으로 45%이고 심한 마을은 60%에 가까움. 이런 마을은 마을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흥회가 활동하고 있음.
- 연간 예산은 150만 엔이며, 시 보조금과 주민 회비로 구성되어 있음.
- * 미야마 내에 지역 별로 5개의 진흥회가 있는데 히라야 진흥회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이렇게 정 안에 5개의 주민 자치회가 활동하는 것은 일본 전체에서 드문 사례임.

○ 작은 거점은 중심 마을에 보건소, 공공시설 등을 고령자들이 쉽게 갈 수 있게 모아 놓은 지역을 말함. 중심 마을 안에 작은 거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작은 거점은 국토교통성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과소화 지역에 대한 사업이며 콤팩트 시티와 비슷한 개념이고 생활 기능에 필요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임.
- 억지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중심지에 모아 두면 이주가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음.
- 작은 거점 정책 추진을 위해 시설들을 모두 새롭게 만들은 것은 아님. 미야마 정은 예전부터 지역 내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지어 왔는데, 지금의 국토교통성의 정책과 맞아 떨어진 사례로,

국토교통성에서 몇 차례 시찰을 왔음.

- 히라야 지구는 10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음. 보통 미쯔노에끼에서 에끼는 역을 의미하는데 역에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는 것처럼 국도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성에서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설치하였음.
- 국가에서 미쯔노에끼를 지정하고, 이곳에서는 화장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운전자들이 휴식도 취하고 물건도 살 수 있는 곳임.
- 미쯔노에끼 핵심 시설은 히라야 지구 주민들이 낸 돈으로 출자해서 만든 직판장임.
- 길위 역은 연간 판매 수익이 2억 엔임. 수수료는 20%이다.

□ 히라야 진흥회 및 작은거점 시설

- 히라야 진흥회는 지역 자치회의 거점이고 행정 창구도 병설되어 있음. 농협 ATM 코너도 같이 있음.
- 행정 창구는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 1명이 상주함.
- 1달에 두 번 소식지도 발간하여 주민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함.
- 진흥회의 주 역할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일임.

- 히라야 진흥회는 기획총무부, 지역진흥부, 생애교육부로 구성되어 있음.
- 기획총무부의 업무는 지역발전 장래계획을 만들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실현함.
- 지역진흥부는 산업 진흥, 관광 교류 추진, 건강 복지 추진의 업무를 담당함.
- 생애교육부는 사회 교육, 문화 활동, 어린이 양육 부분의 업무를 담당함.

- 관광 진흥소가 있음.
 - 미야마는 관광에 힘을 쏟고 있고 연간 관광객 7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 타이완 동남아 관광객과 같이 해외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음.
 - 팜플렛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를 준비하고 있음.
- 니야마 후루사토라는 주식회사는 제 3 섹터로 난타시가 주식으로 출자하였고 주민들도 함께 출자함. 정주 촉진, 농업 진흥, 농산품 판매의 일을 담당함. 또한, 제 3섹터에서 운영하는 우유공방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고 있음. 우유를 가공해서 치즈, 아이스크림도 함께 판매함.
- 의료 진료소는 아주 작은 병원으로 1명의 상근 의사가 있음. 입원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음. 미야마에는 고령자가 많아 상근 의사가 있다는 점은 안심되는 부분임. 의료재단법인에서 파견된 의사가 상근함.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을 주로 치료하고 큰 질병은 큰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함.
- 보건복지센터는 난타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함. 주 업무는 간병, 장애인 상담임.
- 위의 여러 시설들을 모아 놓은 것을 작은 거점이라고 함. 시설은 난타시에서 지은 것이고 운영은 민간에서 함.

□ 작은 거점 사업 과제

- 작은 거점 사업으로 하드웨어를 정비하고 진흥회 활동을 촉진 시키고자 함.
 - 지금 난타시의 경우 미야마 정, 히요시 정, 소노베 정, 야기 정 모두 합쳐서 난타시가 된 것임. 2001년이 합병이 되었는데 합병 전에

- 4개의 정에 모두 5개의 지역 진흥회가 있었는데 주민과 행정직원이 연계해서 운영하였음.
- 합병 이전에는 농업생산기반, 도로기반 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부분을 계속 해왔음. 또한 관광 시설 정비도 하였고 이주 관련된 시설 정비도 하음. 연간 관광객이 70만 명이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0만 명이었고 증가하였음.
- 올 봄에 초등학교가 폐교되는데 5개가 하나로 통합되고 폐교되는 4개의 학교를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음.
- 초등학교는 단순히 교육시설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위해 주민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려고 함.
- 건물 경관을 통일 시키고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과제임.
- 현재 미쯔노에끼는 히라야 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야마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가고자 함.
 - 미야마 주민 전체가 미쯔노에끼를 거점으로 사용하고 범위를 넓혀야 다른 지역의 미쯔노에끼와 경쟁이 될 수 있음.
 - 미야마는 관광이 중심 산업이므로 미쯔노에끼를 미야마의 핵심 시설로 운영해야 함.
- 미야마 내 지역 진흥회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들이 연계해 나가는 것도 과제임.
- 작은 거점을 하면서 시설들을 거점 중심으로 모았는데 거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좋지만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수단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 디맨드버스라는 승합차를 시에서 운영하며 전화로 요청하면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자원봉사 개념의 주민 복지 추진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상호부조활동을 하고 있음.

<히라야 진흥회 방문 현장>



4.2. 미야마 정, 츠루가오카 진흥회

□ 작은 거점으로서의 츠루가오카 지구

- 츠루가오카의 인구는 1960년대에 가장 많았고 지금은 806명임.
 - 1년에 15명 정도씩 감소하고 있음.
 - 학생 수는 16명, 5학년 학생은 없고 고령화율은 42%임. 작년엔 어린이 출생이 6명이었고, 미야마 전체는 16명이 출생함. 초중학생이

없는 마을이 16개임.

- 가구 수는 1960년대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인구는 감소함.
- 츠루가오카 지구는 교토부의 가장 중심에 있음. 우체국, 진료소, 파출소, 초등학교가 있고 상점을 중심으로 반경 50M 안에 공공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의 진흥회를 만들기 전에 공민관, 마을 자치회, 지역 지구 활성화 추진 위원회 등의 조직을 하나로 합쳐서 진흥회를 만들었음.
 - 커뮤니티 시설로 관리하였는데 세 개의 부문이 있음. 판매부, 농사부, 복지부로 구성되어 있음.
 - 2001년에 츠루가오카 진흥회를 설립했고, 진흥회 설립 당시에 이 가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 테마였음. 없어진다면 안 되기에 주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지켜나가자고 하였음.
 - 출자금은 출자자 100여 명의 주민이 있고 한 명당 5만 엔 출자를 하였음. 츠루가오카 주민 자치회에서도 300만 엔을 출자하여 총 1,000만 엔의 출자금을 마련함.
- 2013년에 츠루가오카 진흥 계획을 수립함.
 - 진흥 계획에는 크게 다섯 가지 축임. 인구 증가, 정주, 소득 향상, 경관, 주민 참여로 구성되어 있음. 5개의 축의 테마에 따라 조직이 있는데 정주의 경우 추진회가 있음. 고령자들이 삶의 보람을 가지고 계속 이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임.
- 2013년도에 국토교통성 사업으로 작은 거점 만들기 모델 지역을 모집하였는데 전국에서 12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츠루가오카가 그 중의 하나임.

□ 운송서비스 제공

- 작은 거점 모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주변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중심 마을에 오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23.5%였음.

- 가장 큰 주민 요청 사항은 마을 중심지까지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해달라는 것으로 38.5%로 가장 높았음.
- 그래서 교통수단 분야를 가장 핵심 사항으로 잡음.
- 특히 고령자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안심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송 서비스를 생각하게 됨.

○ 시범 사업으로 2013년에 고령자 수송 서비스를 시행함. 무료이고 전화를 하면 모시러 가는 방식임. 시에서 하는 디맨드버스와 겹치지 않는 노선에 대해 지원하고 지구 내에서만 하는 것임.

- 교토부 보조금을 받아서 수송차를 구입하였고 이는 전기자동차임.
- 이용현황을 보면 80대 등 고령자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함.
-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벽지 마을에서 많이 이용함.
-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날짜는 월, 수, 금으로 디맨드버스도 운영하지만 고령자 수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함.
- 버스를 이용하는 목적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우체국에서 연금을 받아가고 진료소를 이용하고 진흥회 내 관련 업무에 참여하기 위함임.

○ 200엔 정도의 요금을 걷는 것이 좋은데, 진흥회비로 주민들이 400엔을 내고 있고 이를 재원으로 계속 사용할 것임.

- 타마센 상점과 진흥회가 위탁 계약을 해서 운전수를 확보하여 월급을 주고, 자동차 점검하는 것은 타마센 상점에서 하고 수리는 진흥회에서 함.

□ 작은 거점 만들기의 성과

○ 첫 번째는 고령자가 살기 편리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추진기관이 만들어 졌다는 것임. 두 번째로는 앙케이트를 통해 지역 현황을

과약하고, 세 번째로는 과소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임.

-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겠다는 자신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의 성과임.
- 방문자 수의 증가로 관광수익이 증가함.
 - 2013년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농가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미야마 정의 도시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수요가 많지만 농가에서 다 받을 수 없어서 선택적으로 받고 있으며, 외국인 역시 많이 방문하고 있음.
 - 처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부모들이 다시 겨울 축제에 참여하고 숙박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 작년부터 2014년에 사토노 공공인을 배치하였고 공공인은 지역과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있음.
 - 미야마에는 이 지구만이 공공인이 배치되어 있음.
 - 이곳 진흥회에서 교토부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강조를 하면서 공공인 배치를 계속 요청함.
 - 이곳에 있는 공공인은 이 지구 출신이고 진흥회에서 2년 정도 일하였고 공공인 제도가 있어 신청을 해서 선발됨.
 - 공공인으로서 지역활성화 일을 하는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타마센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독려하는 역할을 함.
- 향후 과제는 첫 번째로는 삶의 활력을 가지도록 지역사회를 만들고, 두 번째로 농업이 유지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임. 세 번째는 삶의 보람을 지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임.

<츠루가오카 진흥회 방문 현장>



IV. 교류세미나 결과

- 좌장: 호시노 사토시 교수 (교토대)
- 일본측 참여자: 호시노 사토시(교토대 농학연구과 교수)
오다 카즈히코(교토부 농업·농촌 창생센터 회장)
시미즈 나츠키(교토대 농학연구과 준교수)
- 한국측 참여자: 송미령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원근 교수 (협성대학교)
구진혁 대표 (누리넷)
성주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은영 초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본측 질문

호시노 사토시(교토대 농학연구과 교수): 한국의 농촌인구가 1990년대에 감소하고 2000년대에도 감소하지만 점차 보합 현상을 보이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촌인구는 감소하지만 감소세는 둔화되어있고 전입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근교 지역에 많이 이동하는 것이지 온전히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도별 귀농 귀촌 인구 표를 보면 40대 이하 귀농 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인데 왜 그런 것인가?

성주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취업이 어렵고 도시의 생활비용이 높은 부분과 자연적인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가족 단위의 귀농 귀촌이 많아지고 있다.

호시노 사토시(교토대 농학연구과 교수): 유턴인가 아이턴인가?

성주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젊은 사람의 경우 아이턴이 많다.

호시노 사토시(교토대 농학연구과 교수):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 농촌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성주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영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는데, 현재 기존 주민과 귀농 귀촌민의 갈등 부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6차 산업을 잘하는 마을들의 경우 지도자들이 귀농귀촌자들인 경우가 많다. 시간의 문제인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평창의 경우에 예전에 연구하였을 때, 15년 후에는 평창의 한 농촌 마을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마을이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마을이 없어지는 문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미즈 나츠키(교토대 농학연구과 준교수): 한국에서 인구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취업난, 생활비용,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요인으로 귀농귀촌정책을 투입하였기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이를 데이터로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정책 투입에 따른 인구증가 정도를 cross 분석하고 있다. 어떤 귀농귀촌정책을 펼치

고 있는가?

송미령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 경우 시마네현의 시정촌 별로 귀농귀촌정책을 다르게 투입하고 있다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단위에서 2006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지자체 별로 귀농귀촌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모두 유사한 형태이다. 용자, 멘토링, 주거지 지원, 사전 교육, 지원금 등이 있다. 정책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모두 유사한 형태에서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차이가 일어났다고 분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봉황군의 경우 귀농귀촌 카페 및 모임이 있는데 정보교류가 많고, 상대적으로 봉황군은 땅값이 저렴하여 빠르게 민간영역에서 귀농귀촌교류가 활발해졌다.

오다 카즈히코(교토부 농업·농촌 창생센터 회장): 콤팩트 빌리지 중심 마을과 주변의 한계 마을의 연계가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이를 위해 디맨드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도 있는가?

송미령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디맨드버스와 같이 지자체에서 행복택시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탑승자가 1000원만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택시 사업자가 수송을 하는 제도가 있다. 커뮤니티 버스보다 운영비가 적게 들고 거점 시설까지의 연결이 쉬워진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마을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곳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기존에 버스가 가지 않는 곳으로 수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버스를 할머니들이 이용하여 면사무소에 와서 문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소재지 지역에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창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과 같은 사람들이 개별 마을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에서 지역 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 활성화 되었다.

시미즈 나츠키(교토대 농학연구과 준교수): 중심지 활성화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중 면 중심지와 배후 마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심재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적 교류도 있다. 과거에는 농촌개발 사업이 한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었는데 마을이 작아져서 마을 내에 공공시설을 투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많은 부분이 면 소재지에 주로 있다. 배후 마을의 주민들이 면 중심지에 있는 공공시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는 인식과 이를 사전 계획 수립에 포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한국측 질문

송미령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령화, 과소화가 심각해지면서 시정촌의 재정력은 약해졌다.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이를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발상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공동생활운동이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중심지에 고령자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살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될 만한 농촌에 정책 자원을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전 국토에 골고루 정책적 손길을 뻗칠 것인가 중에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호시노 사토시(교토대 농학연구과 교수): 중심지에서 주변 지역 마을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는 것은 일본에서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실시하였고, 마을이전정책이라고 하였다. 중앙 정부의 농수산성과 총무성이 관련되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는데 농지에 대한 애착이 큰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실패했다. 실제로 시행한 곳이 5곳 밖에 없다. 결국 성공적인 평가는 아니었다. 특히 주변 마을에서 중심 마을로 이전했을 때 이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고, 정책이 결국 시들해졌다. 지금 홋카이도의 시무가와현에서 마을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이 아니라 임업과 광산업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

에 대한 애착이 없고, 심각한 과소화지역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도 중심지에 공영주택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송미령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을 보면 겨울에 난방비가 아까워서 아침에 모두 같이 마을 회관에 모여 있고 저녁에 그곳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마을 회관을 마을의 거점으로 보고 이곳에 서비스를 집중하는 것이 각각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보다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중심지와 마을의 어떤 부분에 투자 우선을 둘 것인가, 마을 안에서도 중심지와 떨어져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느 곳에 정책 자원을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은 마을 이전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거주지 지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농촌 마을 지역에서 중앙난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중심지하고 마을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일본에는 집회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마을 회관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데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호시노 사토시(교토대 농학연구과 교수):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을 투자 효율성에 맞추면 안 될 것 같다. 일본의 예산이 90조 엔인데 이 중 노인, 의료, 고용, 복지 관련 예산이 50%에 가깝다. 그리고 고용 부분에 대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자가 가장 많은 곳이 도쿄인데 그렇다고 농촌에서 고용자를 위한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연 환경을 유지해야 되므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데 토쿠시마현의 카미카트 정에 나뭇잎비즈니스라는 것이 있는데 회를 먹을 때 나오는 잎을 고용자들이 산에서 채취하여 판매하는데 70-80대의 노인들이 2,000만 엔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고령자이지만 경제 활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지원을 계속하면 노인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국 효과적인 정책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마네현의 분석결과를 보면 시정촌 단위에서 보면 시마네에 시정촌이 40개가 있는데 시정촌 단위로

보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지만 지구 단위로 보면 증가한 곳도 있고 감소한 곳도 있다. 그리고 증가한 곳은 적절한 정책을 투입한 곳이다. 적절한 정책 투입이 과소화된 농촌 지역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중심 마을과 주변 마을의 연계를 통해 주변 마을을 버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인 생각, 경제 척도만으로 농촌 지역을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고, 장기적이고 생활의 질, 생활의 풍부함, 만족도를 포함해서 농촌 지역을 평가하고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

심재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루사토납세에 직접 참여를 하는가?

오다 카즈히코(교토부 농업·농촌 창생센터 회장): 시찰을 하셔서 많이 아실 것인데 이는 2006년에 제1차 아베 내각 때 만들었고 이 당시 제대로 제도가 활용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실적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가 후루사토납세의 경우 기부로 분류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확정 신고를 해야 기부한 금액에서 주민세 면제를 받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간소화 이후 기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납세와 사업 정보를 알 수 있다. 나가사키현의 사세보시의 경우 세금이 2,000배 증가하였다. 이 돈을 지역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후루사토납세를 기부하면 답례품을 보내주는데 이것이 지역의 특산품이고 이것을 결국 사서 보내므로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역 홍보효과도 있다. 또한 후루사토납세로 모여진 재정 수입을 하드웨어 부분 정비에 투자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큰 도움이 되므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 중이다. 교토부가 지금 후루사토납세를 문화재보존에 쓰고 있고 일본정부에서 후루사토납세를 홍보하는 안테나숍 같은 곳이 도쿄 아사쿠사에 있는데 이고승로 사람을 파견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5분 정도면 후루사토납세를 등록할 수 있다. 도쿄나 오사카에 후루사토회기(이주/정주)센터가 있는데 고향회기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교토부에서 이주 정주 담당자를 2명 파견하여 이주 정주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성주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기업 판 후루사토납세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좋고 농촌관계자들도 어떻게 다른 보조금하고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시미즈 나츠키(교토대 농학연구과 준교수): 후루사토납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금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을 해야 하고 목적에 따라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한다. 지자체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테마로 쬐으면 하는 바가 있어 홈페이지에서 보고 기부하는 것인데 기부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점을 잘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일률적인 사용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인연이 있는 지역이나 관심이 있는 대상에 납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곳에 납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후루사토납세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자체가 고민이 많은데, 답레품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해야하고 답레품에 투자하다보면 지역 활성화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드는 부분과 같이 지자체가 떠안게 될 문제를 잘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후루사토 납세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답레품을 중시하는 납세의 형태로 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으로 후루사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타 지역의 특산품까지 구입해서 답레품을 주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처음의 취지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후루사토납세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부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미국은 사회 공헌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일단 후루사토납세가 이러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아 개선을 해야 하고 후루사토납세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지

금 현재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욱더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주, 생산, 판매 수준의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 도입하였다. 그런데 인구 전체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을 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총력전을 위해 후루사토납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후루사토납세로 10만 엔이 들어오고 이중에서 5만 엔을 활용할 때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량이 중요하다. 후루사토납세를 통해서 고향과의 인연을 상기시켜주는 장점도 있다. 자신의 고향에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한 지자체의 내용이 방송에 나오면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그 지자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지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교류세미나 현장>

